“부처님 품에서 삶의 희망 찾았어요”

송광사, 노숙인 위한 희망템플스테이 열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직 등 고통과 실의에 빠진 노숙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위탁을 받아 5월 27~29일 경내에서 ‘2009년 희망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노숙인 시설 이용자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는 참가 희망자 35명이 참여했다. 첫날(27일) 방사배정, 사찰예절 습의를 시작으로 둘째날(28일) 나를 깨우는 108배, 송광사 배우기, 참선체험, <법구경> 공부, 암자순례, 스님과의 대화가 열렸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도량청소, 소감발표,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송광사 관계자는 “신규 노숙인을 초기에 집중관리해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법구경> 강의에는 지거 스님(영등포 보현의집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사회재활을 희망하는 노숙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격려했다.

참가자 김형본(44)씨는 “사회에서 중식배달, 제빵 등의 일을 하다 1998년부터 11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지금까지 술에 의지하며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며 “송광사의 골짜기, 산, 숲 등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2년간 노숙생활을 해 온 임민우(34)씨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삶에 의지를 갖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 외의 참가자들도 송광사가 마련한 심신수련 및 자기성찰을 위한 프로그램에 흡족해했다.

참가자들은 “108배를 통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로 인해 피해 입었을 많은 이들을 돌이켜보니 그동안의 삶에 죄책감이 든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노숙인 대상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을 중 한차례 더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5월 27~29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노숙자를 위한 희망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종각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템플스테이 행사가 노숙인들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템플스테이의 확대운영 및 가톨릭, 개신교 등의 타종교 선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숙인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춤 노래 마술 숨겨둔 ‘끼’ 발산

전북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전북의 명산 김제 모악산에서 전북 청소년들의 큰 잔치가 개최됐다.



5월 23일 김제 금산사에서는 제13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행 · 금산사 주지)는 5월 23일 제13회 전북청소년모악축제를 김제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중 · 고등학교 50여개 학교 지도교사와 500여 청소년이 참가했다. ‘5월’ ‘은혜’ ‘연꽃’ ‘아버지’ 등의 시제가 주어진 가운데 문예부문 (운문 산문)과, 사생부문(한국화 서양화), 음악페스티벌 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사물놀이, 국악, 전통악기, 노래, 단체댄스, 마술 등 다양한 특기를 마음껏 발휘했다.

원행 스님은 금산사 총무 원혜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모악산 금산사는 역사의 현장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도량”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낭만과 호연지기를 한껏 키우고 자신이 가진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오래 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부문별로 전북 교육감상, 김제시장상, 파라미타 협회장상이 수여되는 입상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운문부 이의광(남성고), 채고은(천천중) △산문부 손은별(금산고), 고유미(용담중) △사생부 이유선(용담중) 권은혜(중앙여고) △음악페스티벌 남성여중 댄스팀, 전주영상미디어고, 전북 제일고 등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적광전 낙성

남산사, 삼존불도 점안


월탄 스님이 5월 23일 정읍 남산사 점안식에서 법문하는 모습.

정읍 남산사(주지 도선)는 5월 23일 월탄 스님과 재곤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지역의 기관장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적광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월탄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부조리와 죄악은 삿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시와 지계를 바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차문화학회 창립

초대 회장 여연 스님

다성(茶聖) 초의 선사의 가르침을 이을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 스님 · 백련사 주지)가 5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여연 스님을 비롯해 장병안 호남대 총장, 이돈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조기정 목포대 교수, 오양섭 명원문화재단 고문 등 150여 차인들이 참석했다.

창립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여연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 다인이다.

여연 스님은 창립인사말에서 “차는 신화에서 출발해 5000년 인류역사 속에 꽃을 피워왔다”면서 “한국차문화학회는 차 문화계와 차 산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 준비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한국차문화학회는 1985년 한국차문화연구회 창립을 원류로 여연 스님 등이 차문화학회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수차례 창립준비회의를 거쳐 창립됐다”고 밝혔다.

한국차문화학회는 창립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할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차문화연구의 계량화, 과학화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어르신 위한 효잔치

광주 지역 사찰 신도회가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범정택)는 5월 24일 광주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한방치료와 미용봉사를 곁들인 ‘남구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잔치’를 개최했다.

1부 법요식에 이은 행사는 미용봉사, 한방치료 그리고 축하공연, 점심공양으로 진행됐다.

범정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축하공연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로 취소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과 송승종 계장

“광주 불교생활문화 묶어 책 낼 터”

광주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 산파역

광주광역시의 살림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청에는 150여 공무원 불자들이 있다. 2003년 시작된 150여 공무원 불자의 결집에 산파역할을 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03년 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성청소년정책과의 송승종(법명 서봉 · 사진) 계장이다.



송 계장은 광주지역의 불교행사에 항상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락자임을 자처한다.

송승종 계장은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다녔다. 하지만 사춘기였던 그는 여러 고민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송 계장의 불연(佛緣)은 대학 2학년 때였다. 당시 송대현 교수에게 ‘철학개론’을 수강하던 송 계장은 칸트와 불교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 줄기 빛을 본 듯 했다.

“바로 서점에 가 <불교학개론>을 구해 열독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앓고 있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다른 불교서적들도 찾아 읽다보니 삶의 방향이 변하는 듯 했습니다.”

송승종 계장은 특히 불교의 인과(因果) 사상과 보시(布施)의 삶을 강조한 가르침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불교의 사상에 심취한 송 계장이 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하지만 절 문턱은 높았다. 당시 초심자에 대한 사찰의 입문교육은 전혀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이 지났을까? 무등산 정상의 규봉암을 가는 등산길에서 걸망을 지고 오르는 스님을 만났다. 화순 보덕굴에서 수행하던 강월 스님이었다. 송 계장은 스님에게서 <인과법칙>을 받고 불교 신행생활을 시작했다.

송승종 계장은 광주와 화순을 오가며 스님으로부터 불교 수행의 대의를 배웠다. 지금도 강월 스님은 그에게는 은사(恩師)요, 스승이다.

불교에 대한 송 계장의 열정은 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초대회장을 맡은 이호준 자치행정국장과 시청불자회를 발족했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시청공무원불자회 발족 후에는 정기초청법회, 사찰순례, 특별법회 등 많은 행사들을 펼쳐왔습니다. 잠시 어려운 시기지만 불심(佛心)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찰과 불교단체에 도우미를 자처해 온 송승종 계장은 스님과 불교단체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님들은 대부분 시장이나 최고책임자와 만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정치적 지시보다는 실무자에 의해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업무입니다. 업무 실·국장이나 담당자와 충분이 이야기가 돼야 결과적으로 좋은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공무원불자회 활동이 여의치 않은 요즘, 송 계장은 바람이 하나 있다. “광주의 불교생활문화를 수집하고, 발굴해 책자로 엮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 수행도 쉬지 않고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